

카타르시스 유발을 위한 전통캐릭터 개발연구 -탈춤의 취발이를 대상으로-

이은경, 김치용
동의대학교 게임애니메이션공학전공
e-mail : mapya@deu.ac.kr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Characters for Inducing Catharsis -For Chwibali of Talchum-

Eunkoung Lee, Cheeyong Kim
Major of Game Animation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캐릭터개발은 다른 무형의 제한적이고 추상적인 콘텐츠와는 달리 유형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가공되어 소비가 가능하다. 특별히 전통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개발은 문화전수 차원에서 볼 때 무형의 유형화 작업으로 유무형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탈춤에 등장하는 취발이를 대상으로 카타르시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취발이 고유의 캐릭터를 연구하였다. 취발이 캐릭터개발은 국내시장에서 취약한 성인층을 위한 캐릭터로서 삶의 고단함을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탈춤은 다양한 축제에 활용되어 고단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가면을 도구로 대리만족을 유도하여 관객의 카타르시스를 이끈다.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캐릭터개발은 전통문화 계승은 물론 매체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로의 재탄생을 가능하게 하며, 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 관련연구

2-1.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는 그리스어로 정화를 의미하며,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 우울 긴장 등의 응어리진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문학에서는 비극 속의 연민과 공포를 통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며, 심리학에서는 자기가 직면한 고뇌 따위를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강박관념을 해소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단순한 쾌감을 뜻하지 않고 비참한 모습이 해소된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2-2. 탈춤의 취발이 캐릭터 분석

취발이는 각 탈춤의 승려과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봉산탈춤에서는 극을 이끄는 주인공이다. 타락한 과거승, 한

량, 승가의 문제아로서 서민을 대표하여 종교적 타락을 상징하는 노무와 부조리한 양반을 노골적으로 조롱한다. 음담패설과 뛰어난 재담으로 사회를 고발하는 것으로 관객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여 카타르시스를 끌어낸다.

취발이의 형상은 각 탈춤마다 조금씩 다르나 공통점으로는 붉은 색상을 사용하여 술에 취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으며 환속과 욕망을 상징한다. 소품으로는 버드나무와 방울을 들고 있는데 이는 젊음을 상징하고 강신용 벽사, 주술적으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붉은 저고리에 대조적인 색상의 두꺼운 녹색 허리끈을 매고 있어 다른 등장인물에 비해 화려한 복장을 하였다. 이는 젊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강한 인상을 준다. 깨끼춤과 모듬뛰기, 크지 않은 동작과 굵거리, 잦은 타령으로 기 많은 한량임을 보여주며 관객 흥을 돋운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전통캐릭터 개발연구로 탈춤에 등장하는 인물 중 풍자와 해학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취발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취발이는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는 풍자와 음담패설 등의 유희적 기제를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유발한다. 이러한 취발이의 캐릭터는 관객들의 정신적 승화작용을 가져오는 스트레스 해소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국내 캐릭터 시장에서 취약한 성인층을 겨냥하여 캐릭터 시장의 확대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https://ko.wikipedia.org/wiki/카타르시스>
- [2] 채희안, 탈춤, 대원서, 2004, p.9.
- [3] 이은경, 장편애니메이션에서 성인층을 위한 탈춤 캐릭터 분석 고전을 활용한 공감대 형성 및 유머이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